

제자 (로마서 16:1-5)

인간은 누구든지 원죄 이후 저주안에 살고 있다. 우리에게는 답이 있기 때문에 운명이 별것 아니지만 답이 없는 사람에게는 운명대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원죄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 이 운명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것을 누리는 중요한 비밀이 기도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운명과 저주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천국에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운명과 저주를 넘어서실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에 있어 우리의 소망이 24이다. 24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 것이다. 망대, 여정, 이정표 이런 단어들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설명되고 있다. 24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말한다. 그리고 망대, 여정, 이정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은 내용이다. 누구든지 이런 기도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근본도 있다. 이것이 기도의 근본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24가 일어날 수가 없다. 아마 일어나도 안될 것이다. 귀신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오직 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망대나 이정표와 같은 단어를 주시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인할 것은 기도의 근본이다.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24에 도달하고 777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 근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이것이 자리 잡고 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기도에 대한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항상 반드시 그렇다. 나라고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다. 첫 번째 기도제목인데, 하나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없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아무 염려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하늘의 무엇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땅에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 없다. 해가 뜨고 지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일이 끝나면 해와 달과 별이 다 떨어질 것이다. 일용할 양식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히 이 응답도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다. 다른 누구의 이름이 아니고, 다른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것이다. 죄를 사하여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죄사함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는 능력 권세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외에는 안된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너는 나를 언약으로 잡으라는 것이다. 나를 누려라. 내 안에 다 있어. 다른데가 아니고. 내가 너의 언약이고 내가 너의 기도라는 것이다. 너는 기도시간에 나를 누려라, 나를 말해라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받아야 한다. 마태복음 6:33절 기도에 대해 중요한 말씀인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였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이다.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다.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마찬가지이다. 십자가의 보혈, 그 안에 모든 의가 성취되었다. 이 피가 모든 불의를 깨는 의이다. 다른 의가 있는가? 이 언약의 피,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어두움을 깨는 하나님의 의인 것이다. 너는 이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다. 이 보혈이 모든 의의 원천이다. 이 언약의 피를 벗어나서 의를 구할 수 있는가? 의라는 것은 곧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가? 죄 사함이다. 그것은 권세이다.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어디서 이렇게 나오겠는가?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너는 기도할때에 그의 의를 구하라. 십자가의 보혈을 기도하라는 것이다. 약속의 피. 이것이 기도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고, 다른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내 기도는 어떤가 생각해 보라. 요한복음 15:7절도 중요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룬다고 하셨다. 니가 내 안에 있으라고 하였다. 다른 것 안이 아니고 니가 내 안에 있어라. 그리고 다른게 아니고 내 말이 너의 안에 있으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였다.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라. 예전에 복음을 잘 모를때에는 이런 것을 이해를 할 못했다. 예전에 복음 모를때에는 이렇게 이해가 안되었다. 주기도문은 목사님 없을 때 그냥 예배 마치는 기도였을 뿐이다. 복음을 알고 난 뒤 보니, 이 한가지 기도제목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고, 완전기도였다. 다른거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그 기도 안에 결국 핵심적 메시지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하나 뿐이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다. 구원 뿐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응답 받는 것이다. 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내 기도는 어디에 있는가?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가? 그것이 내게 언약이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가? 24가 되는 근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기도응답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 해 놓으신 말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한다. 여기에서 모든 결론 다 내야 한다.

1. 제자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나온다. 약 36명 정도 된다. 전도제자도 있고, 중직자, 산업인 제자도 있다. 개개인별로 인생의 방향, 사명 다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전부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었다.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제자로 살아야 한다.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다. 너무나 귀한 사람이다.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예비된 자가 제자이다. 그리고 이 제자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복음 운동의 중심에 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에 시대적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마태복음 13장 8-9절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 60, 100배 결실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더러는 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 시대에 제자로 쓰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들 중에서도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힌다고 하였다. 전보다 100배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더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다는 말이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좋다. 그리고 9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였다. 눈이 열려서 보이는 자가 되라는 의미이다. 이 제자의 원리가 들리는 자가 되라는 의미이다.

사도 바울 주위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뢰와 같은 총성된 보호자도 있었다. 그리고 로마 너희 교회에 가면 필요한 데로 도와주라고 하였다.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동역자도 있었다. 당대 최고의 사명자이고 산업인이었다. 복음 운동을 위한 아주 중요한 경계를 담당할 중직자였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한 동역자였다. 이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다. 그래서 이들은 주위의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아서 예배를 드린 사람도 기록이 되어 있다. 오늘 본문에는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그랬다.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 있는 사람들. 14절에도 있다.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도 문안하라. 15절에도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드리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온가족이 함께 복음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다. 10절에 보면 아리스도볼로의 권숙에게 문안하라. 11절에 나깃수의 권숙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형태를 갖춘 지교회인데, 그런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부 다 박해중에서도 세계복음화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시대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될 것이다. 우리는 전부 시대적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시대적인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복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 인생도 이루어간다. 그 복음이 큰 복음이면 응답이 크다. 그 복음이 섞은 복음이면 인생이 섞은 모양으로 나타난다. 기준이 복음이다. 오늘 2부 예배 제목이 나의 복음이다. 내가 가진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그 이야기이다. 우리는 시

대적인 복음을 받았다. 시대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 복음에 약속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복음이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된 적은 없었다. 교회사 전체에 없었다. 사도 바울 이후에, 무디때도 아니고 웨슬레때도 아니면 더 이상 다른 때는 볼때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것도 다르고 바르다. 정확한 복음이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바란다.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 그러면 중요한 인생이 된다. 의미있고 정복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 2. 조직전도

전도자에게는 조직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전도를 정복할 수 있다. 대부분은 전도에 놀려 있다. 그러나 제자가 일어서고 제자가 일어서면 전도를 정복한다. 마음에서부터 정복한다. 그러면 정복된 메시지가 나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 계속 정복할 수 있는 제자들이 들어온다. 중요한 기도제목중 하나이다. 특별히 전도자들에게는.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만나서 사도가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보다도 사도바울이 이해한 복음이 더 뛰어나다. 그 내용과 누림이 다른 사도들과 차이가 난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그의 서신을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제자들도 서신을 썼다. 또 하나를 보면 나타난 증거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다르다. 기준은 복음이다. 그래서 당연히 그 결과로 나타난 전도도 상호간에 차이가 많았다. 다른 사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이다. 사도바울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난 사도가 있으면 그 사람을 성경이 썼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한다. 사도바울의 전도는 정확한 복음과 제자 중심의 전도였다. 그의 전도 현장에서는 조직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확대가 되었다. 결국 로마를 정복하였다. 다른 사도들에게도 조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도바울만한 조직이 일어난 사도는 없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로마를 정복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전세계의 복음운동은 전부 사도바울의 제자들로 되어졌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케치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해야 한다.

사도바울이 들어간 곳에는 다른 사도들에게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행 16장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진이 일어났다. 다른 사도들의 전도 현장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 없었다. 17장 데살로니가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어 복음 전한다고 온성이 소동이 일어났다. 아주 난리가 났다. 행 19장에는 2년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날마다 강론했다. 구약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계속 이야기 했다. 2년동안 이렇게 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덮으면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갔다는 것이다. 다른 사도들에게는 이런 기록은 없다. 복음 전했다. 도마같은 사람은 인도에 갔다, 한국에 갔다, 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 많은 기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록은 없었다.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쓰던 책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태웠다. 그런데 그 책값이 온 오만이나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 노동자들이 5만일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었다. 했수로는 137년동안 안 먹고 번 돈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그 이후, 에베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다. 에베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연극장에 모여서 두시간동안이나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다. 그 신 이름이 아데미인데, 에베소서의 에데미어 하면서 두시간동안 불렀는데, 나중에 기록을 보면 그 중에 태반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다. 다른 제자들의 현장에도 기적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사건 기록은 없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가? 이유를 알아야 한다. 복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확했을 것이다. 서신을 보면 알 수 있다. 베드로는 수제자이지만 절대 로마서 같은 것은 못 쓴다. 베드로 전후서 봐도 이게 어부가 영적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절대로 로마서나 히브리

서같은 것은 못 쓴다. 고린도전후서에 보면 그 교회 안에 일어난 많은 일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베드로는 이런 것 못한다. 잘 할 수 있었다면 베드로를 시켰을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이 더 정확하고 깊었을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모든 문제의 진짜 해결이다, 이것에 대한 발견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깊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에 대하여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정확했다는 것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나님에게 기준은 복음이다. 그의 족음심과 피흘리심이 과연 무엇이나? 여기에 대한 우리의 신앙고백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기준에 맞춰서 한다. 기도 응답도 이것이 기준이다. 전도의 문 열리는 것도 다 기준이 이것이다. 결국은 내용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종교는 무엇인가? 행위이다. 행위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나의 신앙고백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사도바울은 이것이 다른 사도들과 달랐다. 다른 분들도 사도였다. 나는 어떤 복음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기준이 복음이라는 것이다. 내 인생의 기준이 복음인가?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복음인가 하는 것이다. 복음이 아니라면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전도자, 사역자는 이것이 메시지로 나가는 것이다. 그것만큼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그리고 또 사도바울이 다른 사도와 다른 것은 제자에 대한 눈이었다. 다른 사도들에게도 조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도바울같은 조직이 없었고, 그냥 몇사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록이 없었던 것이다. 요한같은 사람은 요한복음, 요한 1,2,3서, 요한계시록 다 썼지만 조직 이야기는 없다. 베드로 주위에도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록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기에선 전도적 조직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할 만큼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잘 보면 사도행전의 1차 전도여행을 보면 현장에서 증거가 나타난 것을 기록하였다. 그 때도 물론 제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직이 일어나고, 그 조직의 제자가 다음 전도로 이어지는 기록은 2차 전도 여행부터 나온다. 사도행전을 잘 보면 사도바울은 혼자 다니는 법이 없었다. 항상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다녔다.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아주 중요한 팀 사역이 되었다. 그래서 함께 먹고 자고 이동을 하는 것이다. 그 때에 많은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항상 정확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바탕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지속해서 사도바울 주위에는 시대를 살릴 제자 그룹이 일어났다. 이들이 기록된 대표적인 장이 로마서 16장이다. 이 후에도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는 더 큰 전도가 일어났었다고 해석한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 물론 셋집에 있다. 로마 시민권자라서. 그 곳에 가만히 앉아서 제자를 부르는 것이다. 보고 받고 메시지 주고 다시 보냈다. 또 올 때 다른 제자를 데리고 오라고 한다.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를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것이다.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를 보낸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 보여 주는 역사적인 시간표가 되었다.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우리는 이런 제자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세계복음화하고 내 인생도 정복하고, 내 인생이 작품 인생이 되고 작품 전도가 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사람을 살리고 전도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조직이 형성된 작품 인생, 작품 전도이다.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기본, 근본, 첫째, 나는 어떤 복음을 가졌는가? 나의 복음은 무슨 복음인가? 그리고 나는 제자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 맘에는 진짜 제자의 필요성이 있나? 필요성이 없으면 기도가 안되는 것이다. 필요성이 왜 없냐면 눈이 안 열려서. 하나님 나도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작품 전도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을 자꾸 더 정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믿음과 누림과 발견이 계속 더 깊어져야 한다. 전도에 눈을 떠야 한다. 제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된다. 기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갔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기도하라. 나를 믿고 끝내지 말고 나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믿는 것은 너무나 귀중하다. 거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되어졌고 바뀌지 않는다. 이제 니가 해야 할 다음 일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기도하라.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